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8.(월) 06:00 < 9.8.(월) 석간 > 배포 2025. 9. 5.(금)

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·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

- 통상차관보, 캐나다 서스캐처원州 무역수출개발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 개최
- 양국간 산업·핵심광물·에너지 등 상호호혜적 협력방안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김정관)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.8(월)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(Warren Kaeding)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-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·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, 천연가스,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,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(매장량·생산량 1위)와 우라늄(매장량 3위, 생산량 2위)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또한,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%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 모듈원전(SMR) 도입을 추진 중이다.

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-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*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,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였다.

* '24년 한-캐 교역액은 172억불로 '15년 FTA 발효 당시(86억불) 대비 2배 증가,
'24년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37.9억불로,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('20년 9.8억불)

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"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,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"이라고 평가하였다. 또한,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, 앞으로도 배터리, SMR, 수소,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강지민 (044-203-565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